

# “이런날 오다니” 휴전 소식에 환호 터진 가자 밤거리

### “비극 끝” 15개월 만 안도감...당국, 안전 우려에 축포 자제령 희생자 떠올리며 불안감 여전...이스라엘 인질 가족도 환영 가자지구서만 4만6천명 이상 사망...어린이 1만3천319명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휴전에 합의하자, 가자지구 주민들은 비로소 15개월간 이어진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과 환희에 휩싸였다.

그러나 환희의 이면에는 뒤늦은 평화가 이미 죽은 이들을 되돌려주지는 못한다는 슬픔, 폐허 속에서 삶을 이어가야 하는 막막함, 언제 포성이 재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복잡하게 엮였다. 억류된 인질의 송환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1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날 앞서 휴전 합의 사실이 알려지자 가자지구의 밤거리는 모처럼 축제 분위기로 뒤덮였다.

가자 중부 데이르 알발라의 거리로 뛰쳐나온 주민들은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면서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며 폐허 속에서나마 기쁨을 만끽했다.

이스라엘 폭격의 희생자들을 받아 온 가자지구의 병원 등에서도 축하 집회가 열렸다.

가자 북부에 집을 둔 난민 알라 아부 카르시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 전혀 기대하지 못했기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낀다”며 “지금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곳곳에서 휴전을 기뻐하는 축포가 울리자, 당국이 텐트촌에서 생활하는 난민의 안전을 우려해 축포 사용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민방위국은 성명에서 “더 이상의 부상자나 희생자를 애도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환희에 이어 찾아오는 슬픔과 피로감, 두려움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전쟁 중에 가족 여럿을 잃었다는 난민 알 쿠르드는 “아직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고 추모할 기회조차 갖지



2023년 10월7일(현지시간)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이 양측의 전격 합의로 1년 3개월여 만에 잠시 멈추게 됐다. 사진은 휴전 소식에 환호하는 가자지구 주민들. /UPI=연합뉴스

못했다”며 “폐허가 됐을지언정 집으로 돌아가게 돼 기쁘지만, 지난 15개월 동안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여전히 이해할 수 없어 슬픔이 솟구친다”고

말했다.

전쟁 발발 후 여덟 차례나 거소를 옮기며 난민 생활을 했다는 니자르 할마드는 집도, 학교도, 병원도 사라진 가자

지구의 현실을 언급하면서 “휴전 소식은 기쁘지만, 전쟁 이후에도 이어질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 ‘한국인 25명 사망’ 헝가리 참사 선장 1심 다시 재판

항소법원 “1심 판사 공정성 결격”...5년7개월 지났는데 재판 원점  
재난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람선 침몰 사고로 재판이 넘겨진 가해 선박 선장의 1심 재판을 다시 열어 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023년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이 절차적 위법 문제로 무효라는 판단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5년7개월이 흘렀는데도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재판은 다시 1심부터 시작해야 할 상황이 됐다.

부다페스트 항소법원은 15일(현지시간) 과실로 수상교통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유리 카플린스키 선장에 대해 지난해 5월 내려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판을 새로 시작하라고 결정했다.

가택연금 상태인 카플린스키 선장을 위치추적 장치로 감속하라는 법원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법원은 “1심에서 절차적 위반이

생태에 판결을 무효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사건을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사건을 심리할 판사로 활동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법원은 1심 판사가 공정한 심리를 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법원이 사건 관계인 등과 관련성을 맺고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도 1심 재판이 진행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법원은 “판사가 공정성을 결여하면 소위 편향성이 생기는데, 이는 증거조사 절차에서 증거를 평가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사건 판결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고 부연했다.

2019년 5월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머트기트 다리 인근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 호를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킨 호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허블레아니 호에는 한국인 관광객과 가이드 등 33명이 탑승해 있었다.

추돌 사고로 유람선은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한국인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인 실종자 1명은 아직도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허블레아니 호의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도 모두 숨졌다.

바이킹 시킨 호에는 카플린스키 선장이 타고 있었다. 그는 허블레아니 호를 추돌하려고 했는데도 무전교신을 통해 의사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추돌 후 허블레아니 호가 침몰하는 상황인데도 제때 구조에 나서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2019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카플린스키 선장은 사건 희생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

## 러 흑해 기름 유출 피해 ‘돌고래 응급병원’ 추진

러시아에서 유조선 기름 유출로 피해를 본 돌고래를 치료하는 응급 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흑해 연안 소치에 본부를 둔 러시아 펠과 돌고래 구조연구소는 15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 “올봄에 기름 유출로 아프거나 다친 돌고래 동물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응급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돌고래를 응급 치료하려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약 500㎡ 창고에 여과장치를 갖춘 실내 수영장 2곳을 마련해야 한다고 병원 부지로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아나파 또는 노보로시스크를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

## 술값 비싼 튀르키예 이스탄불...밀주 마신 19명 사망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가짜 술을 마셨다가 잇달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15일(현지시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지난 72시간 동안 이스탄불에서 불법 주류를 마신 후 총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66명이 병원에 입원 중이며 이 가운데 26명은 외국인으로 파악됐다.

이스탄불 주정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류 판매업소 6곳의 면허를 취소하고 업장을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튀르키예에서는 주세가 높은 탓에 주류 제조에 쓰이는 에탄올이 아닌 공업용 메탄올로 밀주를 담그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메탄올을 사람이 섭취하면 두통, 어지럼증 등 중독 증상을 겪게 되고 심하면 실명이나 신부전증에 이르

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또다른 전쟁 피해자인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도 기쁨과 걱정 속에서 휴전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인질 가족 단체는 성명을 내고 “압도적인 기쁨과 안도감으로 휴전을 환영한다”며 “2023년 11월부터 이 순간을 애다게 기다린 끝에 어느 때보다도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할 순간이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러나 협정이 완전히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여전히 떨치지 어렵다”며 “협정의 모든 단계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렵사리 성사된 휴전 협상으로 포성이 멈추게 됐지만 15개월에 걸친 전쟁으로 전역이 초토화되고 4만6천707명의 사망자를 남겼다.

사망자 대부분이 민간인이며, 전쟁 전 가자지구 인구의 2%가 사망한 것이다. 이중 신생아를 포함한 어린이 사망자는 1만3천319명이다.

사망자 집계는 수습된 시신만 포함되는 것이어서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했다.

이러 “오염된 바다에서는 돌고래를 치료할 수 없다”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5일 크라스노다르와 크림반도 사이의 흑해 케르치 해협에서 러시아 유조선 2척이 악천후로 침몰해 약 2천400의 기름이 유출됐다.

연구소는 기름 유출 여파로 돌고래 3마리가 폐죽음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거나 사망할 가능성까지 있다.

다부트 쿨 주지사는 “사망 사건을 일으킨 이들을 사법처리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가짜, 불법 주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스탄불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류로 인한 중독 사례가 총 110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48명이 사망했다. 튀르키예 정부는 올해 초부터 전통 술 ‘라키’ 등 일부 알코올 음료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을 13% 인상한 바 있다. /연합뉴스

##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품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 ASTRO

###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가가 ₩ 1,180,000

헤드	단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보 완전해결



소비가가 ₩ 1,380,000

헤드	단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가가 ₩ 800,000

헤드	단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강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